

놀라움·감동 동시에...예능으로 파고든 VR·AI

김광석·김현식 등 고인 재조명
코로나 속 콘텐츠 생생함 강화
불편한 심리 극복은 최대 과제

IT 영역에서만 익숙했던 VR(가상현실)과 AI(인공지능) 기술이 안방극장으로 파고들어 시청자들을 새로운 세계로 안내하고 있다. 특히 예능가에서는 김광석·김현식·거북이 터틀맨 등 지금은 세상에 없는 가수들을 최신 기술로 소환해내는 데 성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엔트 'AI음악프로젝트 다시 한번'은 터틀맨의 목소리를 복원했다. 거북이의 리더 터틀맨이 옛 모습 그대로,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특유의 장법으로 '시작'의 후렴구를 부르고, 다른 멤버들과 안무까지 소화하는 모습은 유족과 멤버, 팬들을 울렸다. AI음악플랫폼 지니에 따르면 이 방송 후 혼성그룹 거북이의 전체 음원 평균 스트리밍이 방송 전보다 169% 증가하기도 했다.

이러 영원한 객이자 가수들이 추앙하는 가수 김현식 편도 반향을 일으켰다. 30주기에 맞춰 무대에 부활한 그는 작곡가 김형석의 반주에 맞춰 박진영의 '너의 뒤에서'를 불렀다. 노래가 끝나자 다시 출연히 사라지는 그의 홀로그램에 그의 동생은 눈물을 쏟았다.

SBS TV 신년특집 '세기의 대결! AI vs 인간'은 김광석의 목소리를 그대로 학습한 AI가 사후 발매된 곡인 김범수의 '보고싶다'를 부르는 티저 영상을 공개해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잠깐 등장한 모습만으로도 김광석만의 장법과 호흡 등이 그대로 복원돼 놀라움과 감동을 동시에 안겼다.

'AI vs 인간'은 이 밖에도 골프 여제 박세리와 AI 골퍼 엘드릭의 롱드라이브·홀인원·퍼팅 승부, 사람과 AI 간 프로파일링·주식 투자 대결 등을 예고한 상태다.

꼭 알려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고인을 복원하는 일은 그 자체로 감동적이다. 지난 2월 MBC TV가 선보인 'MBC스페셜-특집 VR 휴먼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는 희귀 난치병으로 딸을 떠나보낸 임마가 VR 기술로 딸과 재회하는 과정을 담았다. 이 작품은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상 TV 다큐멘터리상을 받으며 작품성까지 인정받았다.

지난 10일에는 KBS1라디오(97.3MHz)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김용균 씨 2주기를 맞아 특집 다큐 '두 엄마 이야기-소선이 미숙에게, 미숙이 소선에'를 방송했다.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인 고(故) 이소선 여사의 육성을 활용, 김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와 가상으로 만나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방식으로



'세기의 대결! AI vs 인간'의 김광석 편



'너를 만났다'

구성됐다.

VR·AI 기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속 TV로 세상을 만나는 시간이 늘어난 가운데 콘텐츠의 생생함을 살리는 데도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1일 시작한 SBS 필(FIL)의 '라이브 온 언플러그드'는 전자 악기를 사용하지 않은 라이브 무대를 시네마 카메라로



촬영한 4K 영상과 3D 180도 VR 콘텐츠로 선보이며 날 것의 현장감을 전달한다.

예능·다큐에서 최신 기술들이 활발하게 사용되자 드라마 시장에서도 이 소재에 주목하고 있다.

완벽한 AI 비서가 등장하는 넷플릭스 '나 홀로 그대'나, 사랑은 하고 싶지만 오답을 피하고 싶은 주인공이 '조상신'이라는 AI 냉장고를 만들었다는 내용의 로코극 MBC에브리원 '제발 그 남자 만나지 마요', AI와 퀴즈쇼를 벌이는 내용의 EBS 웹드라마 '슈퍼스마트 퀴즈쇼' 등이 그 사례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21일 "아직 완벽하게 구현된 상태는 아니지만 정부 주도로 VR 관련 콘텐츠를 육성·지원하는 부분이 많기도 해서 새로운 시도가 방송가에서 계속 나올 것으로 본다"며 "특히 음악은 익숙하고 접근하기 쉬운 장르라 최근 관련 프로그램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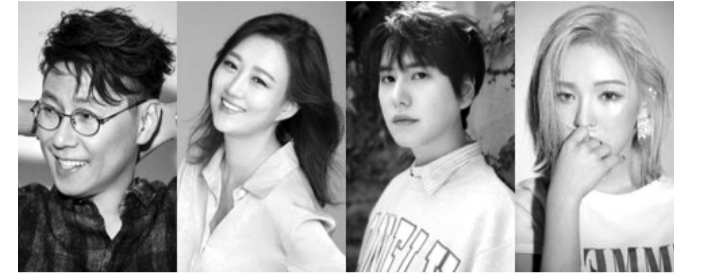
이러 "다만 언캐니 밸리(uncanny valley, 불쾌한 골짜기), 즉 인간은 아닌데 인간과 너무 똑같아지면 굉장히 소름 끼치는 불편한 심리가 있을 수 있고 윤리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걸 어떻게 잘 설득하느냐도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신비한 레코드샵'으로

윤종신 MC 복귀

장윤정·규현·웬디와 호흡



윤종신, 장윤정, 규현, 웬디(왼쪽부터)

가수 겸 방송인 윤종신이 JTBC 새 음악 예능 프로그램 '신비한 레코드샵'으로 MC에 복귀한다.

21일 JTBC와 SM C&C 스튜디오에 따르면 다음 달 선보일 새 음악 토크쇼 '배달gayo(가요)-신비한 레코드샵'에는 윤종신, 장윤정, 슈퍼주니어 규현, 레드벨벳 웬디가 출연한다.

'신비한 레코드샵'은 네 MC와 함께 공통의 직업으로 묶인 게스트들의 인생 이야기와 '인생곡'을 소개하는 음악 예능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음악 인생을 되돌아보고자 스스로 '이방인'을 선택해 세계를 거닐었던 윤종신은 한층 깊어진 내면과 음악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중심이 돼 풍성한 프로그램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뿐 아니라 유튜브 등 세계를 무대로 한 OTT(실시간 동영상 서비스) 경험을 주 무기로 콘텐츠를 공급해 왔던 SM C&C 스튜디오가 JTBC와 처음으로 합작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문소리, 12년 만에 MBC 복귀

'미치지 않고서야' 주연 맡아



배우 문소리(사진가 '내 인생의 황금기'(2009) 이후 12년 만에 MBC 드라마에 출연한다.

MBC TV는 내년 상반기 방송 예정인 새 수목드라마 '미치지 않고서야' 주연으로 배우 문소리가 낙점됐다고 21일 밝혔다.

'미치지 않고서야'는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중년들의 치열한 생존기를 그린 드라마로, 문소리는 사내 최초의 여성 임원을 꿈꾸는 워커홀릭 전직회사 인사팀장 당사영을 연기한다.

연출은 '주몽', '선덕여왕', '여자를 울려' 등을 연출한 김근홍 PD가, 극본은 '마녀의 법정', '동안미녀' 등을 쓴 정도운 작가가 맡았다.

/연합뉴스

대통령·시장 상인...5·18 직간접 경험한 24명 이야기

광주 MBC 27일 '내 인생의 오일팔...' 방송

대통령부터 시장 상인까지 5·18민주화운동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24명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를 통해 전달된다.

광주 MBC는 오는 27일 오전 8시15분 다양한 인물이 겪은 80년 5월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조명할 특집 다큐멘터리 '내 인생의 오일팔-스물네 번의 고백'(사진)을 방송한다.

이 다큐멘터리는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두편씩 방송됐던 24명의 인터뷰를 묶은 것으로 지난 5월 현재 대통령으로서 지역 언론사와 최초로 인터뷰 화제를 모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5·18 소설 '소년이 온다'를 쓴 한강 작가, 고등학교

시민군이었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당시 군검찰관이었던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영화감독 장선우, 대구 시민 권순형 등이 출연한다.

내레이션 없이 인터뷰로만으로 채워진 프로그램은 5·18을 주제로 서로 얽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한다.

대인시장 주먹밥 할머니와 전남도청에 마지막까지 남은 시민군의 이야기가 담겨 있으며, 5·18 37주년 기념식 때 예고 없이 대통령과 포용했던 김소형씨의 인터뷰가 이어진다. 또 광주 트라우마센터에서 5·18유공자들을 상담했던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 박사와 시민군 박천만씨의 이야기도 만날 수 있다.

프로그램 끝에는 지역민과 시청자 스물네 명이 말하는 '내 인생의 오일팔'도 소개된다. /전은재 기자 ej6621@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